

청학동의 문화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 경 화 · 한 명 숙*

상명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가정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ulture and Clothing Behavior of Chunghahk Village

Kyung-Hwa Lee and Myung-Sook Han*

Graduates School,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Chunghahk-dong is located in a retired spot, Jiri Mountain and has been built up its own religion and culture without any exchange outside world.

People in Chunghahk-dong believe in a religion called Genjungyutaoism. Forming a trinity on which mind is Taoism, body is Buddhism, and behavior is confucianism. These are the principle elements to form a village. They made their own unique cultural factor such as longhaired boys and girls, wearing traditional cloths and hat, a monastic life, folk mores and family rituals, and private school system. This shows a great deal of affection on their life style and organization and is closely connected with community and culture. Grasping a culture and behavior on clothing, it has purpose to understand Chunghahk-dong properly according to this study. A method of study has a purpose to understand culture and clothing behavior precisely in Chunghahk-dong. I inquire into clothing behavior with investigation and study of picture script.

The results are as followed;

People in Chunghahk-dong show unique clothing and hair style behavior based on Genjungyutao.

First, men and women wear a white cloth called HanBok(Korean costume) and footwear made of rubber. Only men wear a blue vest. A grown up men wear a long coat when they go out. They are dressed in tractional cloth for a ceremonial occasion. The reason why they put on the HanBok(Korean costume) is a belief on our traditional cloth becomes a standard dress in the future. They believe Korea becomes a standard dress in the future. They believe Korea become a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This clothing behavior is symbol of Genjungyutao and has a role of delivery system for expressing their split.

Second, In sign of being a Genjungyutao men, they let their grow hair. Cutting hair is not to be a Genjungyutao men any more. There is few reason that people in Chunghahk-dong let grow their hair : First, because of importance in TanGun's ideology, they believe Korea is a first nation in the world and can't cut their hair which has grown from TanGun(The founding father of the Korean nation) Chosun traditionally. Second, Cutting their hair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nature. Third, They value their body for confucianism. They don't want to damage their body because of body from their parents. Boys and girls braid and tie up their hair and adult tie a topknot and a chignon. Wearing a YouGun(A horsehair skullcap) at home and a Kat(A Korean top hat) when going out, they express as a Genjungyutao. Hemp cloth and synthetic fibers are main clothes. Also, they wear an improved HanBok(Korean costume) these days on influencing outside.

Key words : Chunghahk-dong, Genjungyutao, HanBok(Korean costume).

I. 서론

우리의 이상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정신문화를 일구어 내는 일, 그것은 외래문화의 범람으로 기존의 도덕체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정신적 미아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래문화를 배척하고 복고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말이나 휴가때 지리산 청학동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도 전통적인 삶의 정서를 이해하고 발전적인 이상향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다.

경남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에 위치한 청학동 마을은 1950년을 전후로 화전민은 모두 떠나고 종교의 하나인 갱정유도(更定儒道)를 믿는 주민들이 이주해 왔는데 그 당시는 주민이 25가구에 이르렀고 1970년대 초부터는 일반인들도 차츰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해서 14가구가 이주하여 들어와 1994년 현재는 39가구 165명이 거주하고 있다. 갱정유도는 유불선이 삼위일체하여 마음은 선(仙)이요, 육체가 있으니 불(佛)이요, 행위가 있으니 유(儒)라는 것으로써 현재의 마을형성에 주축이 된 종교이다. 이들은 외형적인 모습에서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데, 긴 머리를 달아 늘어트린 소년 소녀들, 흰두루마기와 도포에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차림은 고풍이 물씬 풍기게 한다. 특히 그들은 수도생활, 의례제도, 서당식 한문교육 등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한다. 이와 같이 종교는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느끼고 행동하면서 세계를 향해 적절한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세계의 존재양식을 규정하며 이는 곧 종교가 인간의 생활방식과 사회체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인간의 사회, 문화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학동의 문화와 의복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청학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방법은 관련 전문서적이나 선행연구 등의 이론적 문헌연구와 실제의 의복행동은 사진집을 통한 연구 및 본인의 실제로 답사하여 조사

한 내용을 병행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사진은 우리 삶의 일상에 가장 깊숙이 파고든 기록의 매체로써 인간의 다양한 삶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오상조 교수가 1984년부터 15~16년간 청학동을 다니면서 그들의 전통적 삶과 청학동이라는 자연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성과 예술성을 접목시킨 사진집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간접적인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는 관계로 연구자가 2000년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직접 청학동을 현지 방문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II. 청학동의 문화적 배경

청학동은 지리산내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외부의 세계와 교류 없이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들만의 종교와 정신, 자연환경, 청학동의 변화등을 살펴봄으로써 청학동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1. 종교와 정신

소위 도인촌(導因村)이라고 불리는 이 청학동에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 불과 몇 십년 전의 일이다. 유불선(儒佛仙) 갱정유도교(更定儒道教)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한국전쟁이후 이곳으로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었다.

갱정유도를 창립한 도교는 강대성(姜大成)으로서 호는 영신당(迎新堂)이다. 전북 남원시 도동동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시운기화유불선동서학합일 대도대명다경대길 유도갱정교화일심(時運氣化儒佛仙東西學合—大道大明多慶大吉 儒道更定教化一心)을 갱정유도(更定儒道)라 부른다. 이는 인의예지 인간성을 수양하고 인간윤리를 실현한 체제와 현대문화의 부조리를 제외한 정제된 문화와 조화하여 다시 새로운 진전을 하므로서 격물치지와 수신제가와 치국평천하를 하는 고상한 지경까지 통달하여 천상일기(天上一氣)를 인간에 해원시켜 지상천국을 건설하자는 도리이다¹⁾. 청학동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에 따라 외부세계와 담을 쌓고 유교적인 전통생활방식을

1) 성시용, "종교 공동체의 세속화 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27.

고수하며 살아왔다. 이들은 머리를 땅거나 상투를 틀고 환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서당에서 훈장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의법절을 중요하게 여긴다.

개정유도의 신앙대상은 선당궁(仙堂宮)으로 이는 선(仙)은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존재이니 그 생리가 무궁하고 조화가 난축한 원기이다. 그러므로 그 묘용을 얻는 자는 수명을 얻게 된다. 당(堂)이란 성현의 위패나 상을 보존하고 제사와 공을 드리는 곳이다. 이 곳은 성현의 신명이 내려 집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심법을 배워 닦는 자는 도를 본받고 덕을 맑히게 된다. 궁(宮)이란 어진 임금과 현명한 신하가 상통하찰하여 정사를 수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명현의 신령이 이곳에 내리게 하여 그 경륜을 받는 자는 세계와 백성을 널리 구제할 수 있게 된다.

기본경전은 부응경(符應經)이며 이는 전통윤리의 덕목들에 대한 해석풀이가 실려 있다.

그들의 사상은 종말관(終末觀), 죄악관(罪惡觀), 윤리관(倫理觀), 내세관(來世觀), 영육관(靈肉觀), 역사관(歷史觀) 등으로 나누는데 먼저 종말관은 천지의 대정수로 볼 때 노천노지되어 인류와 만물이 일대전환기를 말함이나 현세를 타파하고, 장래를 개척함이 지상의 과제일 것이며 그것은 인류의 장래가 예기치 못할 재난으로 존망의 기로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죄악관은 사람이 인의예지를 실행치 아니하면 이는 모든 죄요, 일단 죄를 지었으면 성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그러면 죄가 다소 경감되기도 하며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은 것은 성연의 음덕이 있어서 그러하던지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손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윤리관은 어떠한 물(物)이 있다면 그 물은 반드시 본말과 시종이 있어서 온전히 물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인간사회의 체제도 반드시 그와 같을 수 없으므로 가정, 사회, 국가의 부패가 사라지고 덕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내세관은 사람이 죽은 후 극락이나 천당으로 가며 앞으로 인간 세계는 확고하고 영원한 내세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영육관은 영(靈)과 육(肉)은 불

가분의 일체이며 영(靈)은 양(陽)의 청정한 기운이 모아져 이룩된 신령한 것이고, 육(肉)은 음(陰)의 정이 어린 형제이기 때문에 음양(陰陽)이 합하면 살고 분리되면 죽는다는 것이다. 역사관은 개정유도의 원천인 인의예지(仁義禮智),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본으로 삼아 국가사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불미한 풍조를 쇠신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에 바탕하며 서양사상까지 실험하여 완전하고 숭고한 사상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유도는 초세적·운동적·독선적인 종교와는 달리 출세적·진화적·경선적인 역사관을 가진다²⁾.

또한 개정유도인들의 평상시 하루일과는 기상과 함께 영선도인법(靈仙導人法)이라는 특수한 운동을 한다. 영선도인이란 복구명을 통해 신선(神仙)기운(氣運)을 체내로 인도한다는 의미의 36가지 동작의 새벽체조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외에도 1년에 두 차례씩 특별기도수련을 한다. 이 특별수련은 보통 15일간이나 때로는 100일 수련도 하며 이 두 수련을 연속적으로 반복하거나 경우에 따라 한가지만 행하기도 한다. 이는 성장(性情)을 도야하고 신체를 단련하며 이치를 깨달아 신화심명(神化心明)되기를 염원하며 독실한 신자들은 매년 한 두 차례씩 반드시 행하고 있다³⁾.

그리고 개정유도인들은 인사법에서 다소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방에서는 일 배의 큰절을 하고 “일심보중하시고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하고 반배를 하나 밖에서는 신발을 벗어 발 밑에 깔고 머리를 길게 굽혀 마치 손으로 굽혀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인사한다. 신발을 벗는 이유는 더러운 흙발로 인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이의 고하(高下)에 관계없이 맞절을 하며 하루에 수차례 만나도 똑같은 인사를 한다.

또한 삼성궁(三聖宮)은 배달민족의 국조인 삼성환인(桓因), 환웅(桓雄), 환검(桓儉) 및 역대 우리나라를 건국한 태조 각 성씨의 시조, 나라를 빛낸 현인 무장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한 곳으로 선도의 맥을 지키는 민족 고유의 도량으로 우리의 얼과 뿌리를 찾는 행사를 해마다 음력 10월 3일에 올리는 곳이다.

2) 정범석, “청학동 마을의 형성배경과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11-17.

3)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 6-지리산 자락」, (서울: 돌베개, 1997), p.105.



<그림 1> 대제당
(청학동 사람들, 1985, p.27)



<그림 2> 청학서당
(청학동 사람들, 1987, p.133)

이는 민족혼을 일깨우며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대화합의 장을 여는 의미도 있다.

이와 같이 청학동 주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통 사상의 수호자세와 겸손한 생활태도 및 가치관의 계승, 발전을 위한 노력은 대단히 고무적이라 하겠다.

2. 자연환경

청학이란 푸른 학이란 뜻인데 이러한 새가 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전설에 의하면 청학은 신선이 타고 다니면서 도술을 부리는 새로서 사람의 몸에 새의 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청학하면 신성을 상징하고 신성하면 청학을 연상시킨다. 청학

은 중국의 문헌에 나오는 “태평시절과 태평한 땅에서만 나타나고 또 운다”는 전설의 새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태평성대의 이상향을 청학동이라 불렀다. 예로부터 전해오던 도인들의 이상향으로 전국의 여러 명산에는 청학동의 전설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학동의 위치는 지리산에 있으며 천석이 아름답고 청학이 서식하는 승경의 하나였다고 한다. 이인로는 「파한집」에서 “지리산 안에 청학동이 있으니 길이 매우 좁아서 사람이 겨우 통행할 만하고 엮드려 수리를 가면 곧 넓은 곳이 나타난다. 사방이 모두 옥토라 곡식을 뿌려 가꾸기에 알맞다. 청학이 그곳에 서식하는 까닭에 청학동이라 부른다. 아마도 옛날 세상에서 숨은 사람이 살던 곳으로 무너진 담장이 아직도 가시덤불 속에 남아 있다”라고 하였으나 청학동을 끝내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였고, 김종직은 피아골을, 김일손은 불일폭포를, 유운옹은 세석평전을 청학동이라고 짚어보긴 했지만 확신을 갖진 못했다⁴⁾.

지리산에서 청학동이라고 불리는 곳은 현재의 청학동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다. 불일폭포 부근, 세석평전, 청학이골(악양면 등촌리 위쪽), 상덕평 마을(선비생 아래) 등이다. 말하자면 지리산 곳곳이 청학동인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존하는 청학동은 지리산 청학동의 유래가 존재해 오던 곳에 자리잡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학동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 삼신봉 동쪽 능선 아래 해발 800m 고지인 지리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일명 도인촌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그 입지가 전설상 깊은 골짜기와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외부와 담을 쌓고 독특한 생활방식을 고집하며 사는 이곳 사람들의 생활이 마스크를 타면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⁵⁾.

청학동 가는 길에는 횡천강과 횡천강을 막아 만든 하동댐과 목계댐, 그 댐으로 인해 만들어진 호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높고 낮은 산들이 곳곳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낸다. 또한 협곡을 끼고 만나는 작은 산간마을들로 이 지역은 연평균 기온

4) 성시용, “중고 공동체의 세속화 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p.14-17.

5) 민족학회, 「우리민족현장답사기」, (서울: 태일사, 1996), pp.179-180.

12.6℃ 상대습도 70.5%이고 한여름(8월)의 평균기온은 24.9℃, 상대습도 61.5%이고 한겨울(1월)의 경우는 -0.8℃, 습도 80.8%이며 연평균 풍속은 1.2m/s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2,266mm로써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⁶⁾.

3. 청학동의 변화요인

'80년대 이후 청학동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외부사람들의 드나들이 잦아졌고 어쩔 수 없이 이곳도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도민촌이라기 보다 관광촌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아와 운둔지로서의 청학동 성격을 갖게 할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요소들의 침투로 인한 청학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활양식의 변화와 교리의 재해석

청학동 주민들이 외부 요소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종교운동들의 자민족 보호주의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은 모든 전통문화를 보존하려는 의도보다는 몇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선별해서 보존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그대로 재생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청학동의 생활방식은 1980년 중반부터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활방식의 변화는 생활수준과 기술도입 등의 요소들로 인해 야기되었다.

청학동에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78~1979년경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전기의 도입은 이전까지 호롱불로 생활을 영위하던 청학동의 생활패턴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곧 이는 텔레비전(1983년)과 가전제품들의 구입(1989년)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용이하도록 해 주었다. 전기의 도입으로 인해 사용 가능해진 여러 제품들의 구입을 시작으로 해서 주방의 개선, 보일러 시설의 도입과 같은 생활상의 변화가 뒤따랐다. 전기와 텔레비전 등은 거의 전가구가 같은 시기에 구입하였으며, 냉장고나 기타 요소들은 1,

2년 차이가 있으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입하였다⁷⁾.

또한 보도매체를 통해 청학동이 외부에 알려지고 청학동이 관광지화가 되면서 청학동의 경제구조는 농경위주에서 상업위주로 전환하게 된다. 즉 이전까지는 농업과 약초판매에 의존하던 청학동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객사와 매점, 민박과 토붕과 고로쇠나무 수액 등을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므로써 주 수입 대상이 상업촌으로 변모하였다.

청학동 주민들로 하여금 이전에 불편했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게 된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일면으로 볼 때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써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청학동이 형성된 초기에는 마을 형편이 극도로 어려웠었다. 이 당시에는 주로 화전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굶기를 밥먹듯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외부요소들의 도입은 청학동 주민들의 종교적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⁸⁾.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청학동 주민들의 종교교리의 해석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개정유도의 교리에 의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물질문명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오며, 그 시기가 지나면 성자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세상은 유토피야와 같은 세상이 된다는 것인데 외부요소들을 수용하기 이전의 청학동 주민들은 이러한 교리에 의거해서 앞으로 물질문명의 시기가 오지만, 물질이 과학문명과 함께 지나치게 발전할 때 인간의 육신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어도 오히려 그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타락시킨다면서 현대문명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외부물자를 도입하면서 이들은 이러한 변화가 교리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라면서 물질문명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교리를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교리의 재해석과 연관된 청학동 주민들의 의식은 오직 정신만을 강조하면서 종교적 수련에만 치중하고 살았으나 현재에는 사회에 비판적이던 청학동의 생활이 안정되고 외부사회와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면서 기존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측면과 연결되었으며 이것은 개정유도의 자

6) 정법석, "청학동 마을의 형성배경과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103-105.

7) 성시용, 전게서, p.58.

8) 정법석, 전게서, p.20.

민족 보호주의적 특성과 교리의 재해석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⁹⁾.

2) 방송매체에 의한 청학동의 소개와 관광객의 유입

청학동은 지리산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어서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외진 곳이었다. 단지 간간히 한두명씩 등산객들이 지리산에서 내려오면서 청학동에 머물고 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것도 매우 드문 현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도로의 개통과 버스의 운행은 많은 등산객들로 하여금 청학동을 경유해서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이러한 등산객의 빈번한 왕래는 <그림 3>과 같이 청학동에 마을객사와 매점을 생겨나게 되었으나 초기에는 마을 공동으로 운영되던 객사와 매점은 사적인 영리추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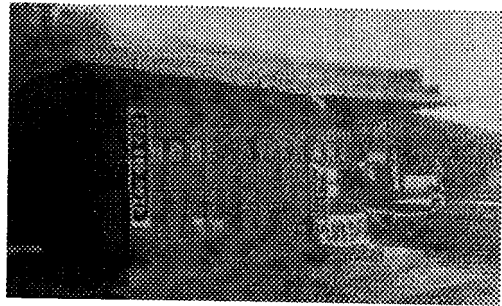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등산객들의 빈번한 왕래는 보도매체를 통해 청학동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청학동이 본격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하동군에서 하동의 자랑거리로 청학동을 자연민속촌으로 만들어 하동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결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청학동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관광객의 유입은 청학동을 이전의 생활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변모시켜 버렸다.

이렇게 볼 때 청학동은 1980~1982년의 기간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도로의 개통과 등산객의 왕래는 청학동의 특산물을 보다 쉽게 외부사회에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전기, 전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의 구입과 마을매점과 객사의 운영은 청학동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관광지로 변모해 갔으며 이는 청학동의 경제구조를 농경위주에서 상업위주로 전환시켰다¹⁰⁾.

3) 경제구조의 변화

청학동은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비 시도가 무산되



<그림 3> 청학동의 변화 (2000)

면서 집단간의 갈등의 심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또한 종교 신앙심과 공동체에 대한 열의가 약화되었다. 또한 경제적 이윤추구와 서로간의 경쟁은 청학동의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청학동의 경제적 이득추구는 경쟁유도의 탈구조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1) 성인식의 소멸-청학동의 성인식은 한명의 성인이 됨과 동시에 경쟁유도인으로서 자격을 부여해 주는 중요한 의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학동의 성인식은 다른 통과의례보다 세밀하고 특별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청학동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멸되어 버렸다. 마을 주민들은 성인이 되는 청년들의 수가 감소 그리고 또한 성인식에 드는 비용과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2) 새벽 예배의 소멸과 의례의 축소-청학동은 새벽 4시경에 마을 주민 모두가 모여서 동쪽을 향해서 예배를 함으로써 경쟁유도에 대한 신앙심과 공동체 의식을 다져왔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마을의 집단갈등이 심화되면서 새벽 의례는 절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지금은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3) 농한기때의 특별 수련의 소멸-청학동 주민들은 이러한 경쟁유도의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주로 농한기에 개개인의 영적 단련을 통해 마음을 밝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선천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수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청학동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멸되고 말았다¹¹⁾.

이러한 청학동의 변화는 청학동이 종교적인 이상

9) 민족학회, 전게서, pp.179-180.

10) 성시용, 전게서, pp.62-66.

11) 성시용, 전게서, pp.67-73.

의 구현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 더욱 전념하게 만들었다. 단지 지금은 복식체계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것도 혼인해 들어온 외지여성들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청학동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농업에서 상업위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개정유도의 탈구조화, 합리화, 그리고 절충주의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학동의 변화 과정은 청학동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외지여성과의 혼인과 자녀들의 교육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청학동 청년들이 가지는 한가지 이점이라면 청년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굳이 외부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청학동은 외부에 도인촌 혹은 전통 생활방식을 지키고 사는 마을이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 여성들이 자진해서 청학동 청년들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개정유도의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외지에서 온 여성들은 한복을 입고 다니거나 엄격한 가부장제에 익숙하지 못해서 한복을 입지 않고 외부인과 똑같은 의복을 입으며 자녀 또한 한복이나 머리를 기르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

또한 외지여성과의 혼인과 아울러 청학동의 교육 문제는 서당을 주장하였으나 외부에서 들어온 여성과 근처 초등학교의 교장, 면장, 군청의 압력 등으로 인하여 1985년부터는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다¹²⁾. 그래서 현재에는 방학기간에만 서당을 다니고 있다.

따라서 청학동의 변화는 외부사회의 접촉으로 청학동의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요소들이 축소 혹은 소멸하며 종교 공동체로서의 청학동의 영역을 잠식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Ⅲ. 청학동의 의복행동

개정유도의 교도로서의 상징적 표현물은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머리를 기르는 것 두가지로 대변될 수 있다. 복장에 있어서의 평소의 의복은 한복에 청의(靑衣)를 입고 고무신을 신으며 외출시에는 어른들만 흰색도포를 입는다. 한복을 입는 이유는 돌아오는 세상은 우리나라가 도덕문명으로써 세계의

지도국이 되고 부모국이 될 것이므로 자연히 우리의 전통의복이 세계의 복장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는 청학동의 정신이 의복을 통하여 무언의 전달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개정유도인임을 알리는 표시이며 머리를 깎는 행위는 더 이상 개정유도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첫째, 단군의 이념과 사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최초국가라고 그들이 믿는 단군 조선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모발을 지금에 와서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인간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모발을 잘라버리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에 위배되기 때문이며, 셋째는 유교사상이 지닌 신체에 대한 소중함 때문이다. 신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사상에서 나타났다. 또한 소년과 소녀들은 머리를 길게 땋아 땋기를 매고 성인 되면 상투를 올리며 여자의 경우는 쪽을 찐다. 집안에서는 유건을 쓰고 외출시에는 갓을 씌으로써 그들이 개정유도임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청학동에는 관혼상제의 사례가 전승되고 있으며 사례복 또한 전통의 의복을 따르고 있다. 의류는 현대의 화학섬유제 및 삼베가 주류이다.

따라서 청학동 남녀의 복식을 사례복식-관혼상제(冠婚喪祭)과 일반복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남자복식

청학동의 남자복식을 관혼상제시 입는 사례복과 평상시와 외출시에 입는 일반복식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사례복식

청학동의 남자복식에서 먼저 관례는 성인이 된과 동시에 개정유도인의 자격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청학동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의식이다. 관례(冠禮)복식의 경우, 관례 이전에는 저고리에 바지, 청·흰조끼를 입고 머리를 땋아 늘어놓은 형태를 하였거나 또는 두건을 머리에 씌으로써 성인이 아님을 나타냈다. 관례 후에는 <그림 4>와 같이 저고리 조끼에 청

12) 정범석, 전계서, pp.43-46.



<그림 4> 성인 남자
(청학동 사람들, 1984, p.79)

도포를 입고 허리에 세조대를 하고 머리는 상투에 망건을 하고 갓을 씌으로써 성인으로써의 의복을 취하였으며 갱정유도인으로써 인정을 받았다.

혼례(婚禮)시 신랑의 경우는 <그림 5>와 같이 속옷은 평상복을 입었으나 겉옷은 예복으로 관복인 남색 또는 북청색의 단령(團領)을 착용하고 가슴에는 흉배(胸背)를 착용하고 서대(犀帶)를 허리에 차며 머리에는 사모(紗帽)를 쓰고 검은 목화(木靴)를 신음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결혼 예복을 착용하였다. 현대의 전통혼례식과의 차이점은 신랑의 머리가 길다는 것과 축하객의 남자복식 또한 양복차림이 아닌 당기머리의 한복차림의 청년이라는 점이다.

상례(喪禮)시에는 상복으로 관(冠), 효간(孝巾), 최의(緋衣), 상(裳), 중의(中衣), 행전(行纏), 수질(首絰), 요질(腰絰), 교대(絞帶), 장(杖), 짚신 등으로 최의는 거친 마포(麻布)로 만드는데 소매는 넓고 가슴왼편에는 최를 단다. 그 위에는 앞 3폭, 뒤 4폭으로 된 상을 입고 삼띠(腰帶)를 띠며 베로 만든 행전을 치고 굴건(屈巾)을 쓰고 상장(喪杖)을 짚는다. 상주(喪主)가 외출할 때에는 두루마기 위에 베 심의(深衣)를 입



<그림 5> 신랑과 신부, 신랑친구들
(청학동 사람들, 1997, p.97)

고 베띠를 띠며 포망(布網)과 두건(頭巾)위에 방림(方笠)을 쓰고 포선(布扇)을 들었다. 따라서 이는 전통적인 유교의식을 따름을 알 수 있다.

제례(祭禮)에는 청학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써 <그림 6>과 같이 준비부터 엄숙하여 입에는 가리개를 하고 머리에 두건을 씌으로써 정성과 청결에 주의를 두었다. 또한 제례시에는 <그림 7>과 같이 바지, 저고리에 흰도포나 흰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착용함으로써 보다 저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와 같이 남자의 사례복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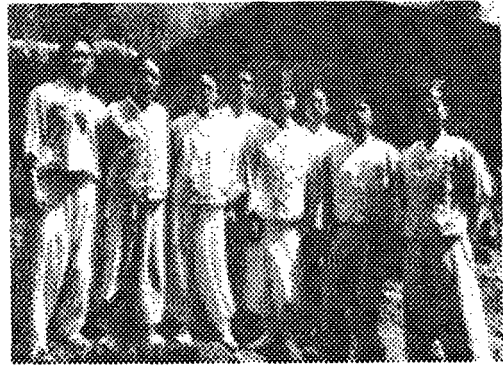
2) 일반복식



<그림 6> 제례준비
(청학동 사람들, 1985, p.37)



<그림 7> 제례
(청학동 사람들, 1985, p.61)



<그림 8> 마을 청년들
(청학동 사람들, 1997, p.87)

<표 1> 남자의 사례복식

사례(四禮)		남 자 복 식
관례 (冠禮)	전(前)	저고리, 바지, 청조끼, 뽕아늘어트린 머리
	후(後)	저고리, 바지, 상투(+망건), 갓, 청포, 세조대
혼례(婚禮)		저고리, 바지, 관복(청단령), 품배, 서대, 사모, 목화
상례(喪禮)		관, 효건, 쇠의, 상, 중의, 행진, 수절, 요절, 교대, 장, 짚신
제례(祭禮)		저고리, 바지, 흰도포, 갓-백의(白衣)



<그림 9> 마을 어른
(청학동 사람들, 1984, p.81)

일반복식은 평상시에 착용하는 평상복과 외출시에 착용하는 외출복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평상복으로는 <그림 8>에서와 같이 성인의 경우는 저고리, 바지에 청·흰조끼를 입고 머리에는 유건이나 탕건을 썼다. 그러나 현재는 외부문화의 전파로 인하여 개량한복을 입기도 한다. 아동의 경우는 저고리, 바지에 머리를 땁기에 매어 길게 늘어뜨리고 개량한복을 입기도 한다.

외출복의 경우는 <그림 9>와 같이 저고리, 바지에 조끼를 입고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으며 허리에는 세조대를 하고 머리에는 갓을 쓴다. 일반적으로 신

발은 흰색의 고무신을 신고 있다.

일반복식의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남자의 일반복식

일반복식	남 자 복 식
평상복	저고리, 바지, 청조끼, 유건·탕전-백의(白衣), 개량한복
외출복	저고리, 바지, 조끼, 도포(+세조대)·두루마기, 갓-백의(白衣)

이상과 같이 남자복식은 그들의 개정유도의 종교를 복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들에게 내제된 정신을 의복을 통한 무언의 체계로써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례복식과 일반복식에서 청학동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통한복의 의복구성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의식을 지키려는 청학동 사람들의 의식을 전통복식을 통하여 몸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여자복식

청학동에서는 여자의 외출 및 사진 촬영이 제한적이다. 이는 가부장제에서 오는 특성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여자들의 복식을 사례복과 일반복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례복식

관례(冠禮)시의 여자의 복식은 치마와 저고리 차림으로 일반복식과 차이가 없으나 관례 후에는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음으로써 성인으로써의 승인을 받았다. 관례 전에는 색동저고리나 치마 또는 성인과 같은 백의를 입고 긴 머리에 땀기를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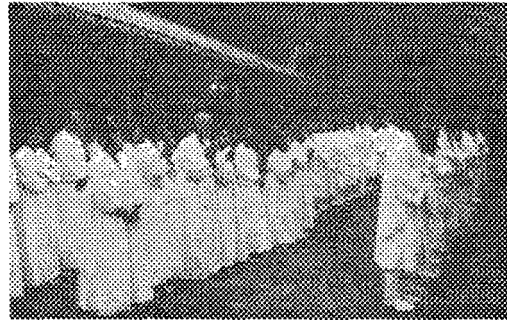
혼례(婚禮)복은 <그림 10>과 같이 속옷의 경우 평상복과 비슷한데 속치마로 무릎까지 닿는 두루치기 위에 무지기를 입고 밑단에 금박을 한 홍색스란 치마나 대란치마와 자주색 회장을 단 삼회장 저고리를 입었으며 겹옷으로는 원삼(圓衫) 또는 활옷을 입었으며 혼례 당일머리는 어여머리에 홍색사에 금박을 넣은 앞땀기와 뒷땀기인 큰 땀기를 늘였다. 머리에는 칠보로 장식한 쪽두리나 화관을 썼고 신코에 구름무늬 수를 놓은 당혜(唐鞋)를 신음으로써 전통의 혼례복 차림을 하였다.

상례(喪禮)복으로는 유교적 의례를 따랐는데 이는 관(冠), 의(衣), 수질(首絰), 요질(腰絰), 교대(絞帶), 장(杖), 미투리 등인데 남자의 상복과 마찬가지로 거친 마포로 만든 치마저고리에 대수장군(大袖長裙)을 입는다. 대수장군은 소매가 넓고 길은 앞에 여섯 뒤에 여섯 개를 달고 등바대는 곁에 댈다. 허리에는 베피와 삼피를 띠고 중부나 기혼자는 대수장군에 흰 쪽두리를 쓰고 짚신을 신는다. 미혼자는 중의를 입고 수질을 쓴다.

제례(祭禮)에는 여자의 경우도 머리에 청결과 정



<그림 10> 결혼식
(청학동 사람들, 1997, p.95)



<그림 11> 제례
(청학동 사람들, 1985, p.67)

성을 위하여 쓰게와 입가리개를 하고 제례를 준비하며 <그림 11>과 같이 제례에는 모든 여자는 흰저고리와 흰 치마를 입는다. 이러한 점은 청학동 사람들의 백의숭상의를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학동의 여자의 사례복을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일반복식

청학동의 여자의 복식에서의 일반복식은 평상복이나 외출복이나 큰 차이가 없다. 주로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으며 주로 백색을 입거나 약간의 무늬나 색상이 있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기도 한다. 아들이나 처녀는 <그림 12>와 같이 색동저고리를 입기도

<표 3> 여자의 사례복식

사례(四禮)		여 자 복 식
관례 (冠禮)	전(前)	저고리(색동저고리), 치마, 땡기머리
	후(後)	저고리, 치마, 쪽진머리
혼례(婚禮)		치마, 삼회장저고리, 원삼 · 활옷, 앞땡기, 도트락땡기, 족두리 · 화관
상례(喪禮)		관, 최의, 상, 수질, 요질, 교대, 장, 미투리
제례(祭禮)		저고리, 치마, 고쟁이-백의(白衣)



<그림 12> 남매들
(청학동 사람들, 1985, p.93)

하였다. 또한 현재는 의부문화의 개량한복의 도입으로 개량한 복을 입기도 한다. 신발의 경우는 고무신을 신는다.

이와 같이 청학동의 여자복식의 경우도 그들의 개정유도의 정신을 복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통의식을 지키려는 의식을 느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청학동의 남녀복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와 같이 청학동의 남녀복식은 우리나라 전통한복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개량한복을 입기도 하나 한복을 입음으로써 그들의 개정유도 사상과 우리의 전통의식을 복식을 통하여 표현하고 계승하고 있으며 우리의 백의숭상(白衣崇尙) 정신도 알 수 있다.

IV. 결 론

청학동 사람들은 유불선합입(儒佛仙合-) 개정유도(更定儒道)인 일심교(一心敎)의 정신을 삶의 가치로 삼고 있다. 즉 유불선으로 동서학(東西學)을 합입

<표 4> 청학동의 남 · 녀복식

구 분		남 자 복 식	여 자 복 식
사 례 복 식	관례 (冠禮)	전(前)	저고리, 바지, 청조끼, 땅아늘어트린 머리
		후(後)	저고리, 바지, 상투(+망건), 갓, 청포, 세조대
	혼례(婚禮)	저고리, 바지, 관복(청단령), 흉배, 서대, 사모, 목화	저고리, 치마, 쪽진머리
	상례(喪禮)	관, 효건, 최의, 상, 증의, 행건, 수질, 요질, 교대, 장, 짚신	치마, 삼회장저고리, 원삼 · 활옷, 앞땡기, 도트락땡기, 족두리 · 화관
	제례(祭禮)	저고리, 바지, 흰도포, 갓-백의(白衣)	저고리, 치마, 고쟁이-백의(白衣)
일 반 복 식	평 상 시	저고리, 바지, 청조끼, 유건 · 탕건-백의(白衣), 개량한복	저고리, 치마, 고쟁이-백의(白衣), 개량한복
	의 출 시	저고리, 바지, 조끼, 도포(+세조대) · 두루마기, 갓	저고리, 치마, 고쟁이-백의(白衣), 개량한복

하여 대도덕(大道德)과 대화기(大和氣)를 통해 인간의 생활철학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청학동은 개정유도에서 규정된 독특한 복식체계와 인사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개정유도의 사회적 표상으로 집단생활을 한다. 복식의 경우는 한복을 입으며 인사법의 경우는 신을 벗고 그 위에 올라서서 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고개를 숙이는 방식 그리고 담배의 금지 등 청학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체계의 요소들이다. 특히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서당에 보내며 현대문명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과 주색초(酒色草)를 엄격히 금한다는 점이 개정유도의 특징이다. 이는 지역적으로 고립됨으로써 외부의 문화가 배제됨으로써 그들만의 종교와 정신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교통의 발달로 청학동도 근래에 들어 점차 그 참모습과 정신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논농사와 밭농사 이외에도 약초, 산나물, 벌꿀, 가축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것이 점점 관광지로서 전환되어 더욱 또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초가집의 형태에서 변화하여 문화시설, 예컨대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세탁기,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등을 모두 갖추어지고 민박 및 찻집 등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그들의 종교적인 속성도 점차 약화되어 청학동의 독특성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며 단지 복식체계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청학동 사람들은 개정유도의 정신과 전통의식을 복식을 통하여 표현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서 조상들의 전통을 계승·전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복식을 사례복식과 일반복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의 복식은 관례전에는 저고리, 바지, 청조끼, 땡아늘어뜨린 머리를 하였고 관례후에는 성인으로써 기본복식에 상투, 갓, 청포, 세조대를 착용하였다. 혼례시에는 바지, 저고리와 관복, 흉배, 서대, 사모, 목화를 신었고, 상례시에는 관, 효건, 최의, 상, 중의, 행전, 수질, 요질, 교대, 장, 짚신을 신었으며 제례시에는 저고리, 바지, 흰도포, 갓을, 평상시에는 저고리, 바지, 청조끼, 유건·탕건을 의출시에는 저고리, 바지, 조끼, 도포, 세조

대·두루마기, 갓을 착용하였다. 여자복식은 관례시에 저고리, 치마를 입고 관례전에는 땡기머리, 관례후에는 쪽진머리를 하였으며 혼례복으로는 치마, 삼회장저고리, 원삼·활옷, 앞댕기, 도트락댕기, 족두리·화관을 썼으며 상례복으로는 관, 최의, 상, 수질, 요질, 교대, 장, 미투리를 착용하고 제례복과 평상복, 의출복은 저고리, 치마를 입었다.

이상과 같이 청학동 사람들은 개정유도라는 종교의 영향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체계와 사회체계를 형성하여 이를 의복행동과 머리모양, 생활방식, 교육 등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청학동의 독특성은 교통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대중화되었으며 현대에는 그들의 의복행동만이 그들만의 종교적 속성과 정신을 표현하는 한 무언의 요소로써 작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도 계속해서 계승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수백년 또는 수천년전부터 형성된 뿌리깊은 마을도 아니고 대대로 전승해온 독특한 역사가 있어서도 아니지만 근대화화 서구화로 치달고 있는 현실에서 청학동 사람들이 고집하고 지키려고 하는 의식과 표현양식이 전통적인 것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민속학회, 우리민족현장답사기, 태일출판사, 1996.
 성시용, 종교 공동체의 세속화 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오상조, 청학동 사람들, 눈빛, 1998.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정범석, 청학동 마을의 형성배경과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6-지리산 자락, 돌베개,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 웅진출판사, 1997.
 한복사랑운동협의회, 사례복의 전망과 발전, 한복사랑운동협의회, 1999.